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해주는 시편

시편23:1-6, 에베소서5:19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불신앙하고 어리석어서 사탄에게 속아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23 편은 시편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다. 시편 23 편 1 절에서 6 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한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이라는 것이다. 시편 기자가 이 내용을 쓸 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문제 없고 평안할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 시행착오, 실수와 아픔을 지나보니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야 나의 목자 되시면 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그 고백인 것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성령인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다. 가정 안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많은 아픔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푸른 초장이 되는 것이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참 복음, 참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다. 그 복음을 알아야지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복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인도해주시실 것이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이다. 그 배경이 사탄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고, 기쁨을 부으시고, 잔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준, 수준, 표준이 말씀과 멀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살리도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한,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은 ‘테힐림(tehillum)’이다. 이 단어는 ‘찬양의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 인역에서는 헬라어로 ‘살모이’이다. 이 단어의 뜻은 ‘시가의 책’ 또는 ‘반주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다. 즉, 시편은 시이면서 찬양의 가사였

던 것이다. 시편은 총 150 편으로 되어있고, 1 장에서 41 장, 42 장에서 72 장, 73 장에서 89 장, 90 장에서 106 장, 107 장에서 150 장, 이렇게 5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시편의 시를 기록한 작가는 여러 사람들이다. 다윗의 작품이 73 개로 가장 많고, 모세의 시 1 개, 솔로몬의 작품 2 개와 고라의 아들들, 아삽, 여두둔, 에단, 헤만 등이 있다. 시편의 특징 중 중요한 것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라는 것이다. 신약성경은 총 283 구절에서 구약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60 절을 시편에서 인용하고 있다. 시편은 단순한 문학작품이나 노래가 아니다. 시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노래로 위로 받고, 즐기고, 행복해 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노래가 아니고 복음적이고 신령한 시와 찬양을 누린다면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1. 첫 번째로, 시편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많은 말씀들이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몇 개의 말씀만 찾아보도록 하겠다. 성도분들은 이번 주간에 직접 시편을 읽으면서 나의 마음을 치유해 주고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들을 찾아보기를 바란다.

(1) 시편은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고 있다. 시편 2 장 8 절 말씀이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도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237 나라에 RUTC 를 세우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2) 기쁨과 평안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고 있다. 시편 4 장 7 절에서 8 절 말씀을 보겠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쁨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다. 불면증이 아니라 편안히 눕고 잘 수 있는 평안과 쉼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중심, 말씀중심, 예배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이 평안을 환경과 조건 없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이 임하길 축원드린다.

(3) 또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야 나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3 편 3 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호와야 우리를 지켜주시실 뿐 아니라, 머리를 들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다.

(4) 시편 기자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편의 내용을 볼 때 오히려 우리는 마음에 치유를 받기도 한다. 시편 69 편 28 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지옥에 떨어지게 해 달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기도로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가식적일 필요는 없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녹아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시편 전체를 읽으면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나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란다.

2.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들이다. 영혼을 치유한다는 것은 구원과 믿음, 사탄, 천사, 천국, 지옥 등 영적인 것과 관계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 영혼치유와 하나님의 자녀이다. 시편 2장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기를 바란다. 진정한 영혼 치유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하는 사역이 바로 이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전도는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2) 영혼치유란 구원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께 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혼이 치유된 사람이다.

(3) 영혼을 치유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악한 영들에게 지배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영혼이 치유된 사람의 영적상태를 볼 수 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영혼을 치유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뒀음을 가질 수 있다.

(4) 영혼이 치유된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시편 5편 7절에서는 영혼이 치유된 성도의 모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들의 영혼이 치유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오직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항상 성전과 예배를 향하시기를 축원드린다.

(5) 영혼이 치유된 사람은 성경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시편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 시편은 구약성경 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상세히 예언하고 있다. 시편은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고난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을 몇 구절만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다. 시편 22편 1절과 16절 그리고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에서 성취되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다.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이다'라고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5절과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성취되었다. 그리고 시편 22편 18절에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이다'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과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총 79회에 걸쳐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 이 말씀 안에 구원이 담

겨져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발견할 때 우리들의 영혼은 치유될 수 있다.

(6) 그리고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 중 하나는 찬양은 우리들이 영혼을 치유해주는 소중한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은 찬양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편인 150편은 찬양에 대한 말씀으로 결말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함께 시편 150편 말씀을 보겠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권능의 궁창은 우주를 말한다. 우주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다. 2절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150장 3절에서 5절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150편 6절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결론으로 오늘도 시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찾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시편에서는 여호와와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목자라는 언약을 알려주고 있다. 그 여호와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최후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 그리고 다문화 TCK 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우리는 시편 말씀으로 힘을 얻고, 24시간 그리스도와 공부, 일에 집중해야겠다. 이때 우리들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만일 마음과 영혼에 병이 들었다면 시편을 읽으면서 완전치유가 보일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며 찬양을 해보기를 바란다. 치유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은 시편을 읽어보고 나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말씀을 다락방과 지교회에서 포럼해보시고 전채카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란다. 위로가 되는 이유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시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설교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 방법을 찾게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완전치유되어 237 나라, 교회와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